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시동'

전북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단 출범

교육부 주관 387억원 규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 주력산업 연계 인재 양성
특화팹 구축, 교육 인프라 · 관리 체계 내실화

전북대학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지역과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육부가 주관한 387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전남대와 연합으로 동반성장형에 선정, 이달 20일 이 사업을 수행할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김진수 사업단장, 그리고 전북도, 전주시,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전북대는 주관대학으로 전남대와 함께 선정돼 연간 85억원씩, 4년 동안 340억 원을 지원 받는다. 또한 전북도와 전주시에서도 각각 20억원과 10억원, 광주광역시 17억원 등 안정적으로 반도체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와 전남대는 반도체 융합전공을 신설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북대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 전자재료, 금속시스템공학)와 기계설계공학부, 전자공학부, 화학공학부, 반도체기술학과 및 물리학과 등이 참여해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및 센서 반도체 융합전공 트랙을 운영한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위한 반도체 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해 연구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이론·응용 교육 등 체계적인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는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화팹을 구축하고, 전용 공간 확보 등 교육 인프라 및 관리 체계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단장인 김진수 교수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생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및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전북대에는 이미 반도체 소자의 일괄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팹이 구축돼 있는 만큼,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모로코 지진피해 긴급 구호 성금 500만원 전달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학교 119 보직교수단은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의 긴급 구호를 위해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119 보직교수단은 119 대원처럼 지역과 대학 발전 더 나아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양 총장은 지난 19일 전북대박물관이 주관한 아프리카데이 행사 참석차 전북대를 방문한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관 라자 라크다르(Ms. Rajae LAKHDAR) 참사관에게 지진 구호 성금을 직접 전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모로코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앞서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 협력을 위해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또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가 전북대 글로컬대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전북대 119 보직교수단은 지난 4월에도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해 600만원의 성금을 모아 기부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민원상담실 구축·운영

교육활동 침해 상황 대비 녹음 · 녹화 안전장비 구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내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상담실 구축을 희망한 17개교에 예산을 교부, 9월 중 상담실 구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실 구축은 전북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교권 침해가 다수 발생한 학교 및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출입을 최소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민원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고, 민원인 응대는 반드시 담당자 외 관리자 등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민원상담실 구축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어려운 시기, 이웃에 희망 · 사랑 나눔에 앞장"

서거석 교육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찾아 위문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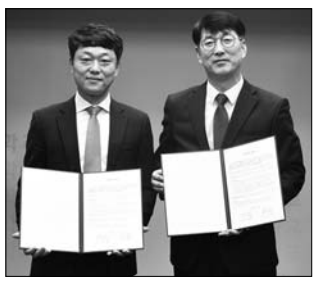
서거석 교육감이 20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에게 무료경로식당, 도시락배달,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활동공간 지원,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도담교실, 학습성장지원, 독서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등으로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먼저 이웃에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전북교육청 공직자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20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사회복지시설 20개소를 방문해 쌀, 화장지, 누룽지, 김 등 격려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호원이피에스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9일 AI뉴테크실에서 ㈜호원이피에스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병훈 총장과 최성복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협력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학생 취업 연계 △기술 트렌드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2024학년도 특성화 · 마이스터고 진로가이드북 제작

도교육청, 중3 담임 · 교실에 배부… 4개 파트로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중3 담임교사를 위한 '2024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로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진로지도를 돕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진로가이드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소개 △전라북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안내 △남들보다 먼저! 꿈을 찾다 △취업 혜택 한가득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입학 특전에서부터 각 학교별 모집 학과 안내, 졸업생 성공 후기, 고졸 청년 지원정책 등 꼼꼼하게 담겼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시군별 학과 모집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4학년도 전라북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역별 모집 현황'을 배포한 바 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진로가이드북에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충실히 담아냈다"면서 "일선 중학교에서 진로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고입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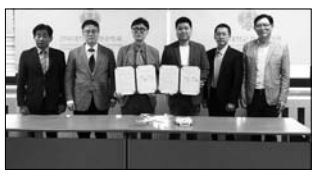
생태계 · 기후 변화 인한 대형재난사고 예방

전북대, 재난안전드협회와 협약 체결… 재난안전예방활동에 필요한 드론운용지원 인력 양성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학과장 장현민)는 (사)재난안전드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현민 학과장, 김종국·김민식 교수와, 김정근 재난안전드론협회 부회장, 김영산 고문(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 조정원 고문(국제기후환경센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생태계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재난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권역 내 재난안전예방활동에 필요한 드론운용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및 서해지역 오염물 불법투기 등 해양생태계 감시 체계 개발 및 공동 실증 협력, 산학연 연계, 저수지 및 댐 환경감시를 위한 드론체계 기반조성, 원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환경·기후감시 드론체계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오염에 대한 공포와, 태풍 등의 재난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운영

도내 93개 초교 5~6학년 501개 학급 대상으로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역할극은 도내 93개 초등학교 5~6학년 501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학교폭력 경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의 일환이다.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수업은 사전 선정된 전문연극 강사가 직접 신청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43명의 강사를 선발했다.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을 주제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고민과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수업을 통해 피·가해 학생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확대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대, 반려동물 특화지역 도약 위한 간담회 개최

도내 4개 시 · 군 추진 현황 보고, 내년 사업추진 방향 논의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센터장 채수찬)는 지난 18일 진수당에서 반려동물 특화지역 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을 비롯한 시·군 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의 4개 시·군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 및 내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인력양성과 반려동물행동학연구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고, 정읍시에서도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반려동물의약품 임상 3상시험 지원센터 건립을 진행 중이며, 임실군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과 오수 제2농공단지 내 반려동물특화단지에 들어설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책사업 발굴과 기업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채수찬 센터장은 "반려동물산업은 소관 부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식약청 설립과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졸업작품 심사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0일 학생종합선교관 진리홀에서 '2023년 졸업작품 심사 및 LINC 3.0 VICTOR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LINC 3.0 사업단과 산학협력단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 오는 10월 26~27일 개최 예정인 전주비전대 졸업작품전 '2023 VISION EXPO'에 전시될 작품들을 선정했다.

전주비전대 14개 학과 515명의 학생들이 45개 산업체와 협력해 66개의 작품을 제작했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을 10월 26일 '2023 VISION EXPO 개막식'에서 작품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